

배포 일시	2022. 9. 14.(수)		
담당 부서	종합교통정책관	책임자	과 장 김정희 (044-201-3804)
	교통정책총괄과	담당자	사무관 조은경 (044-201-3786)
보도일시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추석 연휴기간 중 총 3,161만 명 이동

- [이동인원] 하루 평균 632만 명 이동, 전년 대비 15.8% 증가
 - [교통사고] 하루 평균 317건 발생, 전년 대비 39.1% 감소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이번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(9.8~9.12, 5일간) 동안 총 3,161만 명이 이동하였으며, 이는 전년 대비 3.5%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.
- 이번 추석은 전년에 비해 연휴기간(5→4일)이 짧아 총 이동인원은 감소하였으나,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(4.18) 후, 처음으로 맞는 명절로 일 평균 이동인원은 632만 명으로 전년 대비 15.8% 증가하였다.
- * 총 이동인원 : 3,161만 명(5일간), ('21년 3,276만 명, 6일간, 3.5%↓)
일 평균 이동인원 : 632만 명('21년 546만 명, 15.8%↑)
- 고속도로의 경우, 총 교통량은 2,765만 대로 전년 대비 3.7% 감소하였고 일 평균 교통량은 전년 대비 15.7% 증가하였다.
- 귀성 소요시간은 귀성기간(3일→1일)이 짧아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, 귀경 소요시간은 귀경기간(1일→2일) 늘어나고 교통분산 대책 등으로 감소하였다. 특히, 짧은 귀성기간으로 인해 차량이 몰리면서 귀성길 정체가 심하게 나타났다.
- * 고속도로 총 교통량 : 2,765만 대('21년 2,870만 대, 3.7%↓)
고속도로 일 평균 교통량 : 553만 대('21년 478만 대, 15.7%↑)
- ** 귀성(9.9 기준) 서울→부산 9:50(2:50↑), 귀경(9.10 기준) 부산→서울 8:50(1:00↓)

○ 대중교통의 경우, 철도 전 좌석 판매로 총 수송실적이 253만7천명으로 전년 대비 13.0% 증가하였고,

- 철도, 고속·시외버스, 연안여객선의 일 평균 수송실적은 전년 대비 각각 81.6%, 19.0%, 15.2% 증가하였다, 다만, 항공 국내선 수송실적은 전년 대비 1.0% 감소하였다.

* 수송실적(천명) : 철도(1,062), 고속·시외버스(1,096), 항공(234), 해운(145)

□ 한편, 교통사고는 총 1,585건으로 전년 대비 49.3%가 감소하였고, 일 평균 사망자수와 부상자수도 각각 5.6명(△17.6%), 455명(△43.7%)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.

* 사고발생건수('22.9.12. 24시 기준 경찰청 신고건수)

- 총 1,585건('21년 3,125건, △49.3%), 일 평균 317건('21년 520.8건, △39.1%)

* 사망자 : 총 28명('21년 41명, △31.7%), 일 평균 5.6명('21년 6.8명, △17.6%)

부상자 : 총 2,276명('21년 4,851명, △53.1%), 일 평균 455명('21년 808.5명, △43.7%)

○ 이는 추석 연휴 전에 각종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 수송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안전 캠페인 및 교통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보인다.

□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“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올해 추석 특별교통대책이 대체적으로 잘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” 면서,

○ “추석 연휴 일 평균 이동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향후 코로나-19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” 을 당부하였다.